그리스도 안의 삶의 변화가 너무 과격하다

(몬1:1~25)

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8.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1.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12.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13.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의 삶의 변화가 너무 과격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의 '과격하다'라는 말은 변화가 과격하다는 이야기라서 과격함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뉘앙스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격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재벌총수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마음을 쏙 빼앗아가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남자를 사귀었는데, 궁금해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보자고 했더니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누군가 하면 알고 봤더니, 그 재벌그룹 산하에 속한 공장이 지방에 하나 있는데, 그 공장에서 경비를 하는 박 씨 아저씨의 아들이에요.

서울에 올라와서 그다지 썩 좋은 학교도 아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 친구를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남자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결혼하겠다고 졸라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격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이 과격한가 하면, 딸내미한테 앞에 놓인 과자그릇을 집어던지는 것도 과격하지만 진짜 과격한 것은, '그래, 그러면 우리 서로 어른들끼리 인사하자' 그러고 그 재벌총수가 지방의 공장에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박 씨 아저씨 내외를 불러다가 사돈이 될 분들로 정중히 모시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결혼을 승낙한다, 이게 과격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갈 정도가 아닙니까?
그 재벌그룹 회장님의 마음씀씀이가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격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관대하게 포용하지만 그 부드러움과 관대함이 오히려 인지상정의 차원에서는 너무나 과격한 이질적인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영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연인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너무나도 과격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예가 초대교회 초창기에 예루살렘교회에서 있었던 유무상통입니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내 주머닛돈이 여유 있다고 그게 없는 사람의 쓰임을 위한 용도로 바뀔 수 있겠어요?
유무가 상통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과격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몇 배 더 과격합니다.
아무 투쟁이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없는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이것, 이보다 더 과격할 수는 없지요, 변화 자체가.
투쟁이 없이 이렇게 되니까 더 과격한 것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의 과격함이 오늘 빌레몬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지금 사도바울이 1차로 로마에 갇혀있는 상태에요, 그러므로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갇혀있는 상태인데도 비교적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바울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자기의 얘기를 털어놓는 중에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오네시모의 생애 속에 어떤 사실이 숨겨있었나 하면, 이 사람이 원래 골로새 지방, 지금의 로마에서 아리아 해를 지나서 발칸반도와 그리스반도를 거치고 에게 해를 넘으면 지금의 터키, 아시아 지방이 나타나는데, 에게 해의 중간쯤에 있는 에베소에서 남동부로 조금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 골로새 지역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골로새 지역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로마에 와 있느냐?' 물었더니, 얼굴을 붉히고 눈물이 글썽해서 과거를 털어놓는데, 이것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거예요.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해서 로마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발각이 되면 용서라는 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도망가도 사형일 텐데,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가서 로마에 살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골로새나 로마나 다 로마제국의 판도 안에 있는 한 통치권 안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오네시모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 온 것도 놀랍지만,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때, 53년부터 57년까지 3차 전도여행이 진행되는데, 그중에서 2년 반을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와 골로새가 멀지 않으니까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 그 두란노서원에서 말씀 전하는 사도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연 것이에요, 골로새 지역의 교회로 자기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면서 신실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실한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도망을 와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사도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 법으로는 마땅히 쳐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편지를 하면서, 용서에 그치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빌레몬이 용서해서 다시 노예

로 불러들여서 자기 밑에서 일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노예가 하는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오네시모의 신분 자체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더 이상 과격할 수 없어요.
지금의 재벌그룹의 회장님께서 안중에도 없는 조그만 공장의 경비원으로 있는 박 씨 아저씨의 아들을 사위로 받아들이고, 그 박 씨 아저씨를 사돈어른으로 정식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과격한 겁니다.
요즘은 마음에 심정적으로 그 박 씨 아저씨를 사돈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심정적으로 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재산을 훔쳐간 자기의 노예를 용서할 뿐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격한 정말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삶의 변화, 이런 편지를 서로 쓸 수 있고 받아서 읽을 수 있고, 그 편지를 읽은 빌레몬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바울이 마지막에 쓴 걸 보면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수용하고 베풀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억지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 많아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격해보이고 너무 급진적으로 보이고,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 가지고 좀 억지스러운 게 아닌가 하지만 이 극단적인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는 당연한 논리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일상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재벌총수님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박 씨 아저씨를 사돈어른으로 진심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당연하도록 논리적으로 틀이 짜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논리를 숨기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오늘 8절과 2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런 극단적이고 과격하고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쓰고 있고, 빌레몬은 받아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흑(黑)이라고 하면, 백(白)이라는 색깔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흑의 색깔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까? 또, 남자다 그러면 여자, 밤과 낮,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안’이라는 말에 대해 상대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공중이 있습니다, 공중에 우리 마음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면 내 육체 속에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체 속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공중의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땅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공중의 차원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향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나라로부터 빛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 빛이 육체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육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하늘과 공중과 땅까지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이 차단돼버리면서 공중이 어둠의 세계가 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가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거꾸로 이 지상으로부터 하늘을 향해 터널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공중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상대적인 공간으로서 하늘과 땅이 하늘의 빛으로 통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터널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마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서 하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중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공중에서 빛의 세계를 만들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터널처럼 뚫어가지고.
그 세계에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산을 훔쳐간 노예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청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으로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가 속한 이 세상을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죽기 때문에.
죽고 부활해서 부활한 마음은 이 육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안의 어둠의 세계가 아닌, 그리스도 안의 빛의 세계로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마음이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몸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빌레몬도 지금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 있으면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 사도바울도 로마감옥에 갇혀있지만 똑같이 육체의 차원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네시모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 마음이 육체의 차원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있는 지역은 다르지만 마음이 한 공간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세상에서 신분이 다릅니다.
사도바울은 유대사람으로서 베냐민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러나 그게 다 육체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육체를 벗어나서 빠져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신분만 주어져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로마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므로 육체의 차원에서 벗어날 때, 육체가 노예지 마음이 노예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사도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의 권속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에 마음이 올라가서 아들의 자리에 머물고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
빌레몬도 마찬가지에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지만 몸이 있을 때 오네시모의 주인이지 몸을 벗어난 마음이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서 승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있게 될 때는 빌레몬도 결국은 오네시모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인종이 다르지만, 육체의 차원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처럼 생각해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육체의 차원이 어떤 차원으로 구분지어지고 차별이 나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속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인격이.
이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를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라는 얘기를 디모데에게도 하고 디도에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에요, 빌레몬도 아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들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다가 열 달이 지나면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공간이동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에요, 디모데나 디도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아들로 낳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이 육체에 밀착하고 육체가 좋아서 붙어있던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이 십자가를 붙잡게 됨으로써 육체와 연합하며 살고 있었던 인격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서 그 인격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 안으로 이 마음이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던 인격이 몸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죽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세상에 없던 자가 태어났으니까 아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복음을 전했더니 그 십자가복음을 붙잡고 그 사람의 마음이 육체가 있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낳은 딸이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너무나 과격한 부탁 아닙니까?
그러나 빌레몬으로서는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의 세계는 지금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접하게 되는 천국이 진짜의 세계이고, 그 진짜의 세계 안에서 오네시모의 인격도 이제는 나의 형제가 되었는데, 육체 상태에서 노예였다가 내 재물을 훔쳐가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빌레몬 너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했으므로 네가 내게 빚졌다, 네가 내게 빚진 걸 생각하면 내가 마땅히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도로서 영적 세계의 질서를 따라서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발적으로 네가 스스로 오네시모를 기쁨으로 형제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밑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육체와 딱 붙어있어 가지고 육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즉각

적으로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반응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지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죽는다는 사건보다 더 심각하고 더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될 사건은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사건은 언제나 오늘에 재현되면서 내가 죽는 사건이므로 내 사업이 망한다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에요.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에요, 내가 죽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의 사건이니까.
그렇게 죽으므로 내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몸은 준비가 되는 상태가 돼요.
선한 일을 위한 준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딸로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몸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도 너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을 위하여 준비된 상태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왜냐하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육체의 차원에서는 오네시모가 종이지만 주님 따라 올라간 인격의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자면 나의 형제니까, 내가 그것을 따라서 내 형제로 받아들였으므로, 너도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해서 오네시모라는 문제를 바울과 빌레몬이 동일하게 일치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의 몸은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서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조화롭게.

이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지요.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한 성령이 나에게도 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하고 일치하게 하고 단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아, 우리가 이러한 성령으로 하나 됨을 오네시모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 사건이 오늘에 재현되는 사건이 되면서 내게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시간 동안 그 생각을 하고 직장에 갔으면 이제 그 생각을 잊어버려도 됩니까?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죽는다는 일보다도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직장 안에 있는 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가장 시급한 일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 몸은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될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너무나 과격하고 급진적인 변화들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멋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과격하고 급진적인 일들이 그저 우리에게서는 일상적인 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